

순천시, 정원박람회 이후 청사진 'K-디즈니 순천' 본격화

생태·정주·복지문화·경제 5개 분야 부서별 융복합 보고회 원도심 상권·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글로벌대학 등 논의

순천시가 애니메이션을 입힌 3대가 즐기는 K-디즈니 순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순천시는 최근 2024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를 개최, 3대가 함께 즐기는 K-디즈니 순천 실현으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15·16일 양일간 생태와 정주, 복지·의료, 문화, 경제 등 5개 분야 부서 융복합 보고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선 '미래를 여는 아침 특강'을 개최한 바

다. 특강을 통해 노관규 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순천이 새롭게 그리고 있는 'K-디즈니 순천'에 대한 구상을 전직원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특강을 통해 공유된 'K-디즈니 순천' 비전 실현과 관련해 국소별로 구체적인 실행안을 마련, 테마별로 융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시의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국소장이 직접 PT를 진행해 업무 추진에 구체성을 더했다.

분야별로는 ▲생태(동천 국가하천 승격, 도심 홍수 예방 및 수원 확보, 순천만 훼손지 복원) ▲정주

(신청사 건립, 대자보 실현 방안, 승마 문화 활성화) ▲복지·의료(생활밀착형 시책, 지방소멸 대응 인구 정책, 순천형 지역안결형 공공의료체계) ▲문화(K-디즈니 순천 종합 계획, 문화도시 조성, 순천형 위계이션, 글로벌대학30) ▲경제(승주 바이오 산업, 원도심 상권 활성화, 도심형 스마트팜, 생태미식) 등 분야별 주요 사업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인문학적 고민이 필수적"이라며, "시의 다양한 정책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미래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상상력과 공간을 보는 눈으로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짜임새 있는 정책들을 좀 총히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김은경 기자 ejkim@kwangju.co.kr



노관규(오른쪽) 순천시장이 지난 15일 열린 2024 주요업무 실행계획 보고회에서 3대가 함께 즐기는 K-디즈니 순천 실현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고흥군, 전남 군단위 최초 농수산물 1억달러 수출 달성

지난해 1억3000만달러 수출고 전년비 22% 증가...유자·김 순

유자·김 등 수출 효과 상품을 지닌 고흥군이 지난해 전남 군(郡)지역 가운데 처음으로 1억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고흥군은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이 1억3000만달러(1738억7500만원)로, 전년보다 21.8%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남 농수산물 수출액의 16.3% 비중을 차지하며, 전남 군 단위 지역 가운데 농수산물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긴 건 고흥이 처음이다.

고흥군은 41개국을 대상으로 유자, 김, 미역, 다시마 등 30여 개 품목을 수출했다.

해마다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수출량과 수출 품목을 늘려왔다.

지난해 고흥에서는 유자가 4354만달러 상당 수출되며 수출액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4.9% 늘어난 금액이다. 고흥 유자는 전국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지역 대표 특산물이다.

고흥 김은 전년보다 수출액이 48.3% 뚝 2357만달러를 나타내며 뒤를 이었다.



공영민(가운데) 고흥군수 등이 미국 상점을 찾아 유자 음료 등 수출 주력 상품을 홍보하고 있다.

미역은 1년 전보다 20.4% 증가한 689만달러어치 팔렸다.

고흥 농수산물은 중국에 2359만달러 상당 팔리며 가장 많이 수출됐다. 중국 수출액은 전년보다 24% 급증했다. 이어 일본 2311만달러, 미국 2054만달러, 러시아 1512만달러 순으로 많았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수한 고흥 농수산물의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해 직접 수출개척단을 구성해 미국, 중국, 유럽에서 고흥 농수산물을 홍보해왔

다. 9차례에 걸쳐 5500만달러 상당 수출 협약을 끌어냈다. 중국 원저우에서는 '고흥의 날' 행사를 열어 수출 시장 확보에 열을 올렸다.

또 유자 맥주와 같은 신제품을 개발해 국가별, 품목별 특성에 맞춘 수출 전략을 세웠다.

고흥군은 이 같은 수출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2023년 전남도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여수국가산단 보임그룹 출범 비전 선포식

"세계 최초 청정수소 발전 사업"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청정수소 전소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보임코퍼레이션 등 3개사가 보임그룹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보임그룹(회장 한문선)은 지난 19일 '보임그룹 출범 비전 선포식'을 열고 무탄소 청정수소 발전 사업에 대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임그룹은 여수에 본사를 둔 보임코퍼레이션

(주), 보임열병합발전(주), 보임이엔에스(주) 3개사로 구성됐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기관단체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보임코퍼레이션은 지난 2006년 설립한 이후 보임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정용 열을 생산해 여수국가산업단지 정유·석유화학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보탬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여수지역 기업 최초로 1조원 규모 투

자 유치를 하고 열병합발전·에너지 전문 중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임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 시작은 보임으로부터'를 내걸고 기후변화에 에너지 대변혁에 발맞출 방침이다.

한문선 보임그룹 회장은 "세계 최초 무탄소 신전원 청정수소 전소 발전사업으로 여수를 신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라며 "글로벌 난제인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ESG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룹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구례군 9월20~22일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구례군은 오는 9월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를 열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사흘간 진행되는 박람회는 구례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다.

박람회장에서는 흙 관련 주제관, 기업홍보관, 체험관 등이 마련된다. 구례군은 지난해 탄소중립 흙 살리기 운동의 시작을 선포했다.

한편 구례군은 지난 19일 군청 상황실에서 무지컬 배우 박해미를 초청해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박해미는 앞으로 흙 살리기 박람회의 대중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흙의 소중한 가치를 전달하는 할



배우 박해미(오른쪽 세번째)가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에 위촉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등을 하게 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탄소중립 흙 살리기 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박해미 배우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박람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상공회의소 신임 회장 우광일 거양엔지니어링 대표

광양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우광일(사진) ㈜거양엔지니어링 대표가 선출됐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16일 호렐락회에서 13차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6대 회장에 우광일 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부회장과 상임의원·감사 등 주요 임원도 선출됐다.

6대 부회장은 김동희 ㈜포스코광양제철소 전무, 박종일 ㈜에스엔엔씨 실장, 서정현 (주)금풍공업 대표, 서종희 오씨아이(주) 광양공장 상무, 안운봉 (주)세명기전 대표, 임성기 중앙이엠씨(주)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상임의원은 강문섭 (주)광양기업 부사장, 고상민 삼진기업(주) 대표, 김영조 (주)해성티앤씨 대표, 나인태 중원산업(주) 대표, 박찬훈 포트엘(주) 대표, 반재경 거명이앤씨(주) 회장, 윤훈 (주)포스코GY솔루



션 대표, 이동석 조선내화(주)상무, 이용재 (주)백제 대표, 이진성 에스케이이엔에스(주)소장, 이찬기 (주)포스코GYR테크 대표, 최욱 (주)포스코퓨처엠 실장, 한광희 (주)태운 대표가 선출됐다. 감사에는 서재석 (주)포스코GYSTEK 대표, 이권의 아르고마린토탈(주)대표가 선출됐다.

우광일 신임 회장은 "광양상공회의소가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임 회장단의 성과는 계승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광양시가 기업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경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